

2024-06-11 16:15 From : 0221559330 To : 9739\*\*9030334449110

Page : 001/006



서울경찰청

SEOUL METROPOLITAN POLICE

### 발신처

발신 부서 : 팩스서버 경제범죄수사팀

일 시 : 2024-06-11 16:09

발신자 : 곽익선

연락처 : 02-2155-9447

팩스 번호 : 02-2155-9330

문서 번호 :

### 수신처

수신자 : 최병선

수신 부서 : 대한상회

팩스 번호 : 030334449110

페이지 수 : 5

제 목 : 접수증 및 사건사실확인원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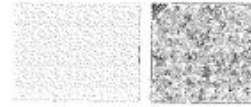
모사전송심사필

2024.06.11

승인권자:문준원

2024-06-11 16:16 From : 8221559338 To : 9739\*\*9838334449118

Page : 002/006



## 접 수 증

제 2023-007853 호	접수일 : 2023-06-05
민 원 사 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민 원 인	최병선
처리 예정기한	2023-08-04
담 당 부 서	수사7팀 (전화 : 02-2155-9439)
담 당 자	문준원
안 내 사 항	별지와 같음

발급자 : 수사7팀 파악선

전 화 : 02-2155-9447

2024. 6. 10.

서울수서경찰서장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수사팀장과의 대화] 코너를 이용해 수사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수사관 및 수사팀장에게 전달되면, 답변 드리게 됩니다.)  
☞ 가는 길 [사이버경찰청 > 내사건문의 > 내 사건 수사팀장과의 대화]
- 더불어 [수사이의신청] 코너를 이용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만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가는 길 [사이버경찰청 > 내사건문의 > 수사이의 신청]
- 접수관서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 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사건이 인계될 수 있습니다.(SMS 등으로 통지함)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http://www.kics.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사건진행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11 16:17 From : 8221559338 To : 9739\*\*9838334449118

Page : 003/006




안 내 사 항	해당 사건은 2024. 6. 5.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향후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용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 000496 호

피해자,고 소인	성명	최병선	주민등록번호	731024-1067114
	주소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09동 601호 (삼평동,봇들마을)		
피해일시		2023-06-05 00:00		
피해장소		불상		
피해상황		현금 665,750,000원		
사건개요 (신고내용)		별지와 같음		
접수(신고)일시		2023-06-05 17:24	응도	법원 제출용
담당자		소속 : 수사1과 수사7팀 계급 : 경감                      성명 : 문준원		
위와 같이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 접수번호: 서울수서경찰서 2023-007853    (2023.06.05.)  <div>2024년 06월 10일</div> <div>서울수서경찰서장</div> <div></div>				
안내사항				
1.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전산자료 대조필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2024-06-11 16:19 From : 0221559330 To : 9739\*\*9030334449110

Page : 005/006

### 사건개요 (신고내용)

피의자 홍승우는 "김웅"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경기 하남시 초광로 128에 있는 ㈜오케이종합유통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자로 현재 별건 사기 피의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자, 피의자 김영옥은 ㈜오케이종합유통의 대표이사, 피의자 남혜정은 대전 서구 동안동로 1221, 1층에 있는 에브리컴퍼니(전, 스토리컴퍼니, 개인사업자) 대표이다.

고소인 최병선은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상인의 대표이사, 고소인 백성만은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고소인들은 "프로메가", "오쏘물", "덴프스"라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납품 관련하여 거래관계가 있다.

피의자 홍승우, 피의자 김영옥, 피의자 남혜정 공동범행

1) 피의자 홍승우는 202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최병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오쏘물 5,000개에 대하여 김은님 14:00경까지 대금의 10%, 나옴날 (4. 26.)대금의 10%, 제품 상차시 80%를 지급하면 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사실 고소인 최병선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건강기능 식품인 오쏘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 4. 25. 1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고소인 최병선으로부터 ㈜오케이종합유통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오쏘물 5,000개 납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69,000,000원을 이체받았다.

2) 피의자 홍승우는 2023. 4. 25.경부터 같은해 같은달 26. 12:3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최병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주)종근당의 건강기능 식품 프로메가 5만개를 130,000,000원에 납품해 주고 해당 제품을 2023. 5. 2.부터 2023. 5. 4.까지 팔아서 ㈜대한상인으로 수익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 최병선이 프로메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 4. 26.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고소인 최병선으로부터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오케이종합유통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프로메가 5만개 납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3) 피의자 홍승우는 2023. 4. 27.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최병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원청에서 우리팀으로 움직이는 분이 많은 제품을 싸게 가져오고 있다. 프로메가 구매가를 1개당 6,900원으로 하고 1개당 8,200원 이상으로 판매하되, 월 10-20만개를 독점 공급하고 1주일에 5만개를 출고하며, 계약금은 대금의 20%, 10만개를 거래할 경우 매입 금액은 690,000,000원, 판매가는 최소 820,000,000원으로 차익이 130,000,000원의 이득이 생긴다. 현물 판매 후 정산 가능하므로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금만 지급하면 되고, 1개월에 15만개의 물량을 보장하며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에 변동이 없다. 계약금은 대금의 20%인 138,000,000원이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제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상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고소인 최병선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 4. 28.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고소인 최병선으로부터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오케이종합유통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프로메가 납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8,000,000원을 이체받았다.

4) 피의자 남혜정은 2023. 4. 28.경 고소인 백성만에게 "기존 덴프스 1만개의 구매가를 개당 21,5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총 4만개를 1주일에 1만개씩 납품해 주겠다. 대신 나는 ㈜오케이종합유통에 덴프스를 납품하고, ㈜오케이종합유통은 ㈜대한상인에, ㈜대한상인은 ㈜어컴퍼니에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였고, 고소인 백성만이 매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런 기존에 (주)어컴퍼니에서 지급한 오쏘물에 대한 계약금 76,450,000원은 덴프스에 대한 계약금으로 일부 하고, 나머지 48,750,000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잔금은 상차시 1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덴프스 1만개를 ㈜어컴퍼

발행일 : 2024-06-10 발행자 : 곡익선 2 / 3

니에 지급하겠다.”라고 속였고 고소인 백성만은 고소인 최병선을 통하여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사실 해당 계약금을 댄프스를 납품하는 ㈜파란고래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 최병선이 댄프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 4. 28.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고소인 최병선으로부터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댄프스 납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와 같이 48,750,000원을 이체받았다.

5) 피의자 홍승우와 피의자 남혜정은 2023. 5.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르고티 대리점 내에서 피의자 김웅이 고소인 최병선에게 납품해 주기로 한 프로메가 5만개를 납품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의자 남혜정은 “프로메가의 출고 총판인 슈마웰에 2023. 4. 26.자에 프로메가 5만개의 계약금 일부 13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에스트론에는 2023. 4. 28.자에 프로메가 10만개의 계약금 20%인 1억3,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슈마웰에서 김웅이 130,000,000원을 빼가는 바람에 물건이 안 나오니 차라리 130,000,000원을 에스트론에 입금해서 다음 주부터 7만개를 납품할 예정인데 슈마웰에서 환불하면 1주일이 걸리니 차라리 230,000,000원을 더 입금하면 에스트론에 입금해서 다음주까지 ㈜대한상인에 7만개를 납품하겠다. 또한 2023. 5. 15.까지 프로메가 7만개와는 별개로 5만개 중 1만개를 보내줄테니 10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되, 50,000,000원은 같은해 5. 12.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같은해 5. 15. 상차시 입금해라.”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사실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프로메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 5. 12. 1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고소인 최병선으로부터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오케이종합유통 명의 하나은행 계좌(173-910009-73904)로 프로메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의자들은 위와같이 2023. 4. 25.부터 같은해 5. 12.까지 총 665,750,000원을 편취하였다.